

'탁 트인 바다와 장어 한입!' 올여름 고흥으로 가자

힐링도 체험도 맛도 한자리! 고흥서 여름 제대로 즐기자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고흥의 자연경관, 문화자원, 지역 먹거리를 바탕으로 다양한 체험 거리와 콘텐츠를 운영 중이다.

대표 해변인 남열 해변이 해수욕장은 고운 모래사장과 맑은 바다, 아름다운 해돋이로 잘 알려진 곳으로 가족 단위 피서객들이 많이 찾는 명소다. 특히, 전남에서 유일하게 서핑이 가능한 해수욕장으로, 깨끗한 수질과 적절한 파도가 서핑 마니아는 물론 초보자에게도 인기를 끌고 있다.

한여름 무더위를 식히고 몸과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명소로는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이 있다. 피톤치드 가득한 편백나무 숲에서 맨발 걷기, 삼립욕, 산림 명상 등의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숲 해설

사와 함께하는 숲길 해설도 가능하며 자연과 교감하는 여름 여행지로 제격이다.

문화 콘텐츠를 찾는 이들에게는 고흥분청문화박물관이 인기다. 이곳에서는 '국보 순회전 - 대한민국의 보물, 고흥에 오다' 특별전이 오는 8월 10일까지 열리며, 국보 4건을 포함한 30여 점의 귀중한 문화재를 직접 관람할 수 있다. 실내 전시관 특성상 무더위를 피해 쾌적하게 문화 체험을 즐길 수 있다.

고흥의 여름은 입맛도 사로잡는다. 특히 녹동 바다장어거리의 고흥의 대표 먹거리 명소다. 녹동항 일대에는 장어 전문 식당이 밀집해 있어 장어구이, 장어탕, 장어 사부사부 등 다양한 조리법으로 여름철 보양식을 즐길 수 있다. 바다를 품은 녹



동항의 바다정원과 소록대교 일몰 풍경은 덤이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녹동항 드론쇼'는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야간 관광 콘텐츠로도 주목받고 있다.

이외에도 고흥 특산물인 유자를 활용한 유아에이드, 유아빵, 유아아이스크림 등은

여름철 별미와 선물용 건강 간식으로 많은 관광객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군 관계자는 "고흥은 즐길거리와 먹거리를 모두 즐길 수 있는 여름 종합 관광지"라며 "안전하고 쾌적한 관광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흥/박도일 기자

전남 함평군(군수 이상익)이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됨에 따라,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농업인과 가축,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철저한 대응을 당부하고 나섰다.

최근 기상청에 따르면 올여름에도 평년보다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실의 작업이 많은 농업인의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실정이다.

함평군, 폭염 대비 농업인·농작물 피해 예방 총력

이에 함평군은 2일 영농 활동 중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농업인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행동 수칙을 적극 실천할 것을 당부했다.

군은 "야외 작업 시에는 20분마다 한 컵 이상의 물을 마시고, 시원한 그늘에서 휴

식을 취해야 하며, 모자 착용, 밝고 헐렁한 복장 착용 등으로 체온을 낮추고, 작업 중에는 동료들과 수시로 상태를 확인해 서로의 건강 상태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응

도 함께 강조했다. 비의 경우 고온기에는 물 흘러대기를 해야 수온을 낮출 수 있고 고온에서 흡수가 억제되는 규산과 칼륨 시비를 해야 고온 장애를 줄일 수 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무더위 속 과도한 농작업은 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작업량을 줄이고 자주 쉬는 등 폭염 대응 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함평/전광훈 기자

무안전통시장, 2025 황토골야시장 7월 5일 개장

문화와 관광이 함께하는 토요일야시장, 지역상권 활성화하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오는 5일 오후 6시, 무안전통시장에서 '2025 황토골 토요일야시장'개장식을 시작으로 10월 5일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야시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5년 무안전통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과 연계해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전통시장만의 이야기와 문화를 살려 문화관광 특화 시장으로 도약하기 위해 기획됐다.

황토골 토요일야시장은 ▲지역 특산물과 먹거리 ▲문화예술공연 ▲체험형 콘텐츠 ▲주민참여 이벤트가 어우러진 복합형 테마장터로, 이는 전통시장의 정체성을 지키는 동시에 현대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시장 모델로 운영될 예정이다.

행사장은 맛집과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미식존', 다양한 체험과 플라미켓이 열리는 '체험존', 공연과 이벤트가 진행되는 '공연존'으로 구성됐고, 상인회와 사업단이 공동개발한 특화 상품도 방문객을 맞이한다.



개장식은 7월 5일 온라인 서포터즈의 발대식을 시작으로 다양한 이벤트와 방문객 대상 기념품 증정 이벤트도 진행하는 등 농가의 판로 확대에 기여하고 농가의 시름을 함께 나눌 계획이다.

김산 군수는 "상인회 주도와 주민 참여로 완성이 되는 야시장이 무안의 대표 콘텐츠가 되고 함께 즐기고 공감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군 제공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카메라 뉴스



화순군, 전 직원 대상 세 번째 맞춤형 청렴 교육 진행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지난 1일 정례조회 직후 본청 대회의실에서 전직원 250여 명을 대상으로 세 번째 맞춤형 청렴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번 교육은 신규공직자와 고위공직자 청렴 교육에 이어 승진자(24년 1월 이후) 및 전 직원을 대상으로 범위를 확대해 추진하였으며, 공직자로서 청렴 의식과 실천 역량을 한층 끌어올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이항노 행동강령과정을 초빙해 공직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공직자 행동강령의 이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교육 내용으로는 ▲공직자 행동강령의 주요 내용 ▲정탁금지법과 이해충돌 방지법 ▲실제 직무 수행에서 유의해야 할 부패·갈집 예방 사례 ▲청렴한 조직문화 구축 방안 등을 폭 넓게 다뤘다. 화순/김종환 기자



진도군, 아동 비만 예방 '건강한 돌봄 놀이터' 운영

진도군 보건소는 성장기 아동이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고 신체 활동량을 늘리는 등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강한 돌봄 놀이터'를 운영하고 있다.

돌봄 놀이터는 사전에 신청한 3개 초등학교(진도서, 고성, 의신)에서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1~2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영양사가 진행하는 놀이형 영양교육과 운동 전문가가 진행하는 신체활동을 4월부터 7월까지 주 1회씩 총 14주간 운영한다. 놀이형 영양교육은 아동의 눈높이에 맞춰 스티커북을 활용해 채소와 과일 섭취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전달하고,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유도하며, 신체활동은 전통 놀이, 협동 놀이 등 다양한 놀이를 통해 아동들이 즐거움을 느끼고, 일상에서 스스로 신체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진도/오재명 기자



영광군, 2025년 폭염 대처상황 점검회의 개최

영광군은 지난 7월 1일, 송광면 부군수 주재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폭염 대응을 위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점검회의에서는 ▲무더위쉼터(경로당 등)의 운영실태를 확인하여 위치 및 주소, 냉방기 가동 상태, 운영시간, 비치물품 등 전반적인 운영 상황 점검 ▲재난도우미(이장, 생활지원사, 방문보건간호사 등)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한 폭염 취약계층 보호체계 가동 ▲폭염이 심한 시간대(12시~17시)의 농작업 자제 홍보 강화 ▲사업장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 ▲야외 체육행사 및 지역 축제시 폭염 대비 사전 조치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영광/이현식 기자



새로운 에너지 세상

자연이 만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세상은 더 밝아지고
우리는 더 따뜻한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태양의 힘으로 움직이고,
바람이 만든 에너지로 밝게 빛나는 세상

한국전력이 깨끗한 에너지로
새로운 에너지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